

“옛 도청 복원·세월호 진실규명 함께할 것”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해산...57만명 촛불

100여명 자원봉사·세월호 유족 등 각계각층 참여

“살아있는 부패권력을 직접 끌어내린 역사적인 촛불항쟁을 광주시민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이끌어낸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가 광주시민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며 지난 31일 해산을 선언했다.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이하 광주본부)는 이날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9일 19차 대표자 집행위 연석회의를 통해 해산을 결정했다”며 “시민 여러분의 넘치는 사랑과 참여 속에 정말 기쁘게 싸워왔던 지난 8개월여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밝

혔다. 광주본부는 이어 “이 모든 것은 오롯이 시민 여러분이 해 내신 것”이라며 광주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광주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2일 첫 집회부터 지난 4월 15일 마지막 21차 집회까지 연인원 57만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동구 금남로에서 집회가 열렸으며 행사 때마다 사회자 백금렬씨를 비롯한 주최 측이 시민과 함께 토론회, 퍼포먼스, 행진 등을 진행했다.

집회에는 자원봉사자들도 한 몫을 했다. 집회 준비와 뒷정리, 청소 등에 100여명의 초·중·고·대학생·청년 자원봉사자

들이 참여해 집회를 뒷받쳤다. 또, 행사에는 세월호와 故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들, 노동·시민·사회·종교 단체의 대표자 등 전국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지난해 11월12일 지역 시민사회, 노동계, 농민 등 1만여 명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에 참가하면서 100만 대회를 이루어냈다. 그리고 이날 광주 5·18 민주광장에 1만여 명의 시민들이 투쟁을 이어갔다.

또, 지난해 11월19일 4차 광주 시국촛불 대회에서 광주 시민들은 1980년 5월 광주 대학생과 시민이 신군부 퇴진과 민주화를 요구하며 옛 전남도청 분수대에서 햇불을 들고 진행했던 ‘민주대성회’를 재현했다. 8만여 명의 시민들이 박 전 대통령에 분노해 36년 만에 햇불을 든 것이다.

광주본부는 해산을 선언했지만 앞으로

도 도청복원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본부는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한 여정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며 “촛불 대선을 만들어내고 정권교체를 했지만 적폐세력들의 준동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두려워함과 동시에 믿어야 할 것은 소위 야권세력으로 위장된 적폐세력이 아니라 민심이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과 국민의 힘을 믿고 과감히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본부는 이어 “옛 전남도청 복원, 박근혜와 부역자 처벌, 세월호와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진실규명, 비정규직 등 노동현안 해결, 언론개혁 등 촛불혁명 완수를 위한 투쟁의 현장에서 다시 뭉칠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방역 시작 | 광주 서구보건소 방역기동단이 지난 31일 광주 서구 양3동 주택가에서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예산 논란에도...예술고 부지매입비 시의회 통과

광주시의회가 찬·반 토론까지 진행하기도 별다른 표결 절차 없이 옛 전남도교육청 부지를 사들여 광주예술고를 옮기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통과시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의원들의 회의 규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100여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채를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30일 제 258회 임시

회 본회의를 열고 전남도교육청(면적 3만 6938㎡) 부지를 매입, 광주예술고를 이설하겠다는 취지의 안건을 포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예산 낭비 논란이 일면서 이날 ‘교육청의 안전한 행장으로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는 지적을 받았던 옛 전남도교육청 부지를 매입, 광주예술고를 이설하겠다는 관리계획에 대한 유정심 의원(반대)과 문상필 의원(찬성) 간 토론까지

진행했지만 정채 표결은 진행하지도 않았다. 이정현 의원이 뒤늦게 제출한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부터 표결을 진행하면서다. 해당 안건은 옛 본관중매각 계획을 빼고 나머지 3가지 안건에 대한 동의안만 담았다.

이 동의안이 부결돼야 앞서 찬·반 토론이 진행됐던 광주예술고 이전 여부가 담긴 동의안에 대한 의원들 간 표 대결이 이뤄지지만 해당 안건이 그대로 통과되면서

아예 표 대결까지 가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5월31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광주시교육감은 부지 매입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문을 본안 조지라는 분석 외에도 바뀐 동의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의원들의 미숙함도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9 | 해질 11:57
해진 19:41 | 달질 00:35

필름비
구름이 많고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구름 많음	20/28	보성	구름 많음	19/28
목포	구름 많음	18/24	순천	구름 많음	19/30
여수	구름 많음	19/29	영광	구름 많음	18/25
나주	구름 많음	17/27	진도	구름 많음	17/25
완도	구름 많음	18/27	전주	구름 많음	20/27
구례	구름 많음	18/29	군산	구름 많음	19/24
강진	구름 많음	18/28	남원	구름 많음	18/28
해남	구름 많음	16/26	홍산도	구름 많음	15/22
장성	구름 많음	18/2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바다	남~남서	0.5	북서~북	0.5
남부	남바다	남동~남	0.5~1.0	북서~북	0.5~1.0
남부	남바다	남~남서	0.5	서~북서	0.5
서부	남바다(동)	남~남서	0.5~1.0	서~북서	0.5~1.0
서부	남바다(서)	서~북서	0.5~1.0	북서~북	0.5~1.0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2:36	07:20	
	19:36		
여수	08:16	01:59	
	20:30	14:36	

◇주간 날씨

2(금)	3(토)	4(일)	5(월)	6(화)	7(수)	8(목)
☀	☀	☀	☀	☁	☁	☀
13/25	15/27	15/28	16/29	18/25	18/26	18/28

◇생활지수

- 경고
- 식중독
- 높음
- 자외선
- 보통
- 피부질환

사립교사 채용 위탁 6개 법인 신청

광주 69개교 중 7곳...교육청 참여 유도 대책 시급

광주시교육청의 ‘교사 채용 위탁’ 요구(광주일보 5월 24일 6면)를 6개 법인, 7개 지역 사립학교가 수용했다. 전체 사립학교(69개)를 고려하면 미흡해 사립학교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교육청은 지난 31일 사립학교 법인들을 대상으로 ‘2017학년도 하반기 신규교사 공동채용’ 위탁 신청을 받은 결과, 6개 법인에서 15명의 교사 채용 위탁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신청서를 낸 곳은 ▲남양학원(동아여중·고 6명) ▲죽호학원(금곡공고 5명) ▲도연학원(명진고 1명) ▲송의학원(송의고 1명) ▲금정학원(세광학교 1명) ▲

동명학원(동명고 1명) 등이다.

교육청의 위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교사 채용이 불가능해지고 기간제 교사들의 정교사 전환도 어렵게됨에도 교육청 제안을 받아들인 사립학교가 많지 않았다는 얘기가. 특히 전체 35개 사립학교법인 중 기간제 교원 비율이 20%를 넘는 법인이 16곳에 이르고 30%를 웃도는 사립학교 법인도 5곳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일각에서는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교육청 제안을 받아들일만한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역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김지율기자 dok2000@

장기수 출신 강용주씨 보안관찰법 위반 제청

1985년 ‘구미 유학생 감점단’ 사건으로 14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강용주(55)씨가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 조항이 위헌임을 가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에게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보안관찰법은

(국가)가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사상의 내심의 자유와 일상을 영속적으로 통제하도록 허용한다”며 “보안관찰 대상자에게 사생활에 추상적이며 광범위한 신고의무를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누구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보관할 수 있는 지 아무런 기준이나 통제 장치도 없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미르샘메디컬센터 | 임대분양
나주 대표 랜드마크형빌딩

나주의 중심상장부에 건립된, 최초 메디컬센터 5월 입주임박!
시외버스터미널~남고문을 잇는 중심상권 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

1 767㎡ | 약국입점확정, 커피전문점, 편의점, 이동통신대리점, 브랜드의류, 축전문점, 대형천시장

2~5 794㎡ |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병원원 환영

6 743㎡ | 전문병원원리 부페 레스토랑 등 대형연회장 환영

친철상담 | 첨단길잡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산구, 대표 이현민)
062-972-8845 · 010-3635-5800

해남 [新] 프리미엄

101스퀘어 상가분양·임대

해남 101스퀘어
해남 [중심상거리] 누구나 임대지만 모두가 가질수 없는 해남 중심!
새롭게 부상하는 그 곳, 황금알을 낳는 해남군청 중심상권의 프리미엄을 드립니다.

해남군청 바로 앞!
[구. 광주은행 해남점]
해남의 중심에서 성공을 목격하다!

광역접근성
- 전남지역 사설부동산도, 진도, 강진, 해남을 아우르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

행정교육의 중심
- 군청, 법원, 세무서 모든 행정은 물론 해남고, 해남중학교, 해남초, 해남제일중, 해남초의 배후 교육 중심지

복합 테마상가
- 푸드, 의료, 의료, 미용, 학원, 법조직원 등 다양한 복합 테마상가
- 목질적인 인구가 늘 유동

안정된 수익
- 초 저금리 시대의 확실한 투자성질!
- 안정된 임대수익으로 대체불가 상품!
- 두번디시 없음! 프리미엄 가치보

분양·임대 1577-1901

세종 | 이주금상
사통 | 진보종합건설(주)